

NEXON노조 Starting Point 지지선언문

가을을 여는 9월 아침, 게임업계의 만형격인 넥슨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됐다는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메이플스토리, 카트라이더, 던전애파이터 등. 넥슨은 10대가 어른이 될 때까지 즐거움을 주는 게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넥슨뿐만 아니라 수많은 게임회사들이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공짜 야근은 기본이고 크런치 모드라는 이름으로 구성원들의 인간다운 삶마저 희생시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이버 사원노조 공동성명은 넥슨 구성원들이 스스로 부조리에 맞서 싸우고, 불합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게임업계 최초로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에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냅니다. 무엇보다 계열사 전체를 아우르는 노동조합으로 연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에 존경과 지지를 표합니다.

어두운 밤을 밝히는 판교의 등대는 더 이상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설립 선언문에서 밝힌 것처럼 과로가 의무인 현실, 저항이 불만이 되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넥슨 노동조합 스타팅포인트가 이 변화를 이끄는 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공동성명 역시 그 길에 아낌없이 연대하겠습니다.

낯설고 두려운 길을 함께 걷어가는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지가 될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불모지에서 시작한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도록 서로 지켜보며 멋진 노동조합의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갑시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넥슨 사우 여러분. 그리고 게임업계 동료 여러분.

노동조합은 회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첫 시작입니다. 함께 하는 조합원의 수가 많을수록 노동조합의 힘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힘이 커질 때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현실은 꿈이 아닌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주저 말고 노동조합이라는 스타팅포인트에 함께 서길 바랍니다.

2018년 9월 4일

네이버 사원노조 '공동성명' 일동

공동共動
성명成明



전국화학섬유
식품산업노조